

정읍시 문화·관광 홍보 웹드라마 공개

정읍시 100% 촬영 '연애를 시작해'
무성서원·내장산·송삼봉마을 배경
정읍 여행 소재...네이버서 시청 가능



웹드라마 '연애를 시작해'

정읍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와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가 22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명소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읍 여행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연애를 시작해'를 제작했다.

정읍에서 100% 촬영된 '연애를 시작해'는 김정권 감독이 총괄 제작·지휘하고, 배우 이송이(무성서원 홍보대사)와 유찬이 주연을 맡았다.

취업준비생인 여주인공이 무작정 떠난 정읍 여행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 함께 여행을 다니며, 티격태격 러브라인을 그려내는 이야기다.

주인공들이 정읍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장

면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과 김명관 고택, 내장산국립공원, 쌍화차거리, 송삼봉마을 등 아름다운 정읍의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진다.

특히 인기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서희(정읍시 홍보대사) 양도 드라마 촬영에 동참했다.

시는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주요 관광지와 우수 농·특산물을 노출시키고 제작 지원 로고를 삽입함으로써 지역을 특별히 알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애를 시작해'는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읍시 웹드라마' 또는 '제이엠라인'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웹드라마가 정읍시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정읍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기쁨과 즐거움,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군산시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착공

1000억원 시민 투자...수익 공유

군산시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조성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 사업은 시민 투자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발전사업으로 나오는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태양광발전소는 군산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단지 동쪽 일원 1.2㎢ 부지에 99MW(메가와트) 규모로 건립된다.

총 1300여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80% 가량인 1000억원을 군산 시민의 투자로 충당하며 참여 시민에게는 연간 7%의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안에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영을 개

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작년 6월 100억원을 출자해 사업을 전담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군산 건설의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과 해상풍력사업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해 군산이 탄소중립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시 신청사 6월 착공...종합운동장에 임시청사

22일부터 부서 이전 시작

익산시가 신청사(조감도)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신청사 건립 착공을 위해 일부 부서를 임시청사인 종합운동장에 이전하며 건물 철거는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로 시청 본관과 의회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사 후관에 위치한 부서를 종합운동장(무양로 1397)으로 임시 이전한 후 신청사를 건립해 전 부서를 입주시킨다.

2단계로 본관동·의회동을 철거한 후 정원 조성 등 전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체 공사는 약 3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 진행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일부 부서를 이전한다.

부서 일부 이전은 1단계 공사로 철거되는 후관동 부서의 운영을 위해 실시된다.

이전 부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과 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체육진흥과),

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지원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다.

문화관광산업과와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의 경우 실내 체육관 1층에, 그 외 부서는 종합운동장 동편 사무실에 위치할 예정이다.

시민안전과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등 3개 부서는 현 청사 내에서 사무실만 이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사 일부 이전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임시청사 운영·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완공

1만2400㎡에 텐트 31면 등 갖춰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을 활용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주력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도립공원 내 기존 야영장 부지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국민여가캠핑장을 새롭게 준공했다. 캠핑장은 총면적 1만 2400㎡에 텐트 사이트 31면, 자기카라반 사이트 8면, 글램핑 사이트 6면과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주차장,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군은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운산도립공원은 매년 2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지만 별다른 시설 없이 오래된 야영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양재범 고창군 선운산공원 팀장은 "지역주민에게는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캠핑장 이용객에게는 건강과 힐링을 위한 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남원시가 식품산업 발전 등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대상 지자체로 남원시가 선정돼 오는 7월까지 수립을 목표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경식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사진>

'푸드플랜'은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하나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 계획관리 시스템이다.



템이다.

보고회는 그간의 경과와 주요전략 및 실행과제가 발표됐고 열린 논의를 통해 남원시 푸드플랜에 대한 보완사항을 발굴하기도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먹거리는 시민의 안전 및 건

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푸드플랜을 통해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먹거리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아름다운 클린카페' 참여업체 모집

5월7일까지...안내판 제작 등 지원

순창군이 아름다운 클린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름다운 클린카페'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다.

'아름다운 클린카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감량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군은 선정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와 아름다운 클린-카페 지정 안내판을 제작해 지원한다.

또 해당 업체를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관내 LED모니터,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아름다운 클린카페' 홍보할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아름다운 클린-카페넷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커피 찌꺼기 처리방향, 요구사항 등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범 군민 운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번 클린카페 운영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먼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전개해 범 군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이.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